

여대생 성희롱 변호사 징계올라

○...서울지방



변호사회는 7일

사무직원을 채용

하면서 여대

졸업반 최아무개(22)씨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배아무개(41)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.

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배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4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원 면접자함을 보러 나온 최씨에게 "애인과 애정행위를 해봤느냐,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, 나와 애인 할 생각이 없느냐"고 묻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.

94.
2.8